



한기주 또 '1회 징크스'

제구력 난조...KIA, 롯데에 4대5 패

제구력 난조...KIA, 롯데에 4대5 패
 KIA 선발 한기주와 마무리 장문석의 공복 점은 무엇일까. 일단 마운드에 올라서면 실점 이후 제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이다. 한기주는 올 시즌 10경기에서 3승 6패를 기록 중이다. 선발 등판한 9경기 중 5차례나 1회에 실점했다. 이 가운데 4경기에서 패전투수가 됐고 1점차로 진 경우는 3경기다. 다시말해 1회에 실점하지 않았다면 최소 3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한기주의 1회 징크스는 신인으로서의 부담감에 따른 초반 제구력 난조가 주원인이다.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27	17	2	0.614	-	1승
2	한화	28	18	1	0.609	-	2패
3	현대	28	19	0	0.596	0.5	1패
4	SK	24	23	0	0.511	4.5	1승
5	KIA	21	22	2	0.477	5.5	1패
6	두산	21	23	2	0.477	6.0	4승
7	롯데	16	29	0	0.356	11.5	3승
8	LG	16	30	1	0.348	12.0	4패

이로써 한기주는 투런 홈런을 허용하고 7이닝 동안 8안타, 4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KIA는 2군에서 복귀한 '용병타자' 서브네의 5타수 3안타 1타점의 무력시위를 앞세워 막판 역전을 노렸으나 4-5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성미 US오픈 못간다 최종예선 59위로 실패

'1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지컬프)가 남자프로골프 최고 대회인 US오픈 본선 진출 문턱에서 좌절했다. 위성미는 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서밋의 커브스클럽에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치러진 US오픈 최종 예선에서 1오버파 143타로 공동59위에 그쳐 상위 18명에게 주어지는 본선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다. 위성미는 남코스(파70·6천625야드)에서 치른 1라운드에서는 보기없이 2개의 버디를 뽑아내 남자대회 사상 첫 '노보기' 경기를 펼쳐 기대를 모았으나 한결 까다로운 북코스(파72·7천66야드)에서 3오버파 75타로 무너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위성미는 10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북코스에서 12번홀까지 3번홀까지 이븐파로 잘 버텼지만 4번홀~6번홀 연속 보기로 사상 첫 여성 선수의 US오픈 본선 출전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위성미가 출전 선수 153명 가운데 공동59위를 차지한 것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컷을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높게 평가했다. 위성미는 "조금 실망스럽지만 결코 여기서 그만두지는 않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US오픈을 비롯한 남자 프로 메이저대회 출전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브렛 퀴클리(미국)가 11언더파 131타로 수석 합격의 영광을 안았고 케빈 스태틀러(미국), 마크 브루스(미국), 스콧 핸드(미국) 등 유명 프로 선수들이 본선 출전권을 따냈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는 5천여명의 갤러리 와 300여명의 보도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6일 열린 US오픈 골프 최종예선에 참가한 위성미가 10번홀에서 버디퍼트를 놓친 뒤 아쉬워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무등기'가 배출한 스타들

서재응·김병현 등 빅리거 이승엽 94년 투수로 출전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무등기는 긴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야구 스타들을 배출하며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서재응과 김병현, 최희섭, 김진우는 무등기를 통해 별들의 무대인 미국 메이저 리그에 진출, 한국 야구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일본과 한국 무대에서 활약중인 이승엽, 임창용, 김진우, 한기주 등도 무등기가 키워낸 최정상급의 스타로 꼽힌다. **임창용 1회째 140km대 투구** 메이저 리그에서 '한국형 핵 잠수함'으로 맹활약중인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은 지난 94년 무등기 1회 대회 때 투타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모교인 광주 일고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김병현의 고교 1년 선배인 서재응(29·LA다저스)도 무등기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다. 서재응은 고교 3학년이던 지난 95년 2회 대회에 참가해 140km대의 묵직한 강속구로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며 초특급 투수의 탄생을 알렸다. 광주일고 최희섭(27·보스턴 산하 포투 캐트삭스)도 95~97년 3년 연속 무등기에 출전, 초대형 슬러거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휘문고의 김진우(29·콜로라도 로키스)도 2회 대회에서 타고난 천재성을 뽐냈다. 지난 2004년 일본으로 진출한 이승엽(29·요미우리 자이언츠)은 94년 경북고 3학년 때 무등기에 출전, 타자가 아닌 투수로 명성을 날렸다. 이들 외에도 현재 국내프로야구를 평정하고 있는 야구 스타들도 대부분 무등기를 통해 셋발 탄생을 내밀었다. 한국프로야구 역대 신인 최고 계약금(10억 원)을 받은 한기주(19·KIA 타이거즈)는 2003년 10회 대회와 2004년 11회 대회에 출전,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괴력투를 뿌리며 국내외의 스카우트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당시 진흥고의 김진우(23·KIA 타이거즈)도 7~8회 대회에서 145km의 강속구와 낙차 큰 커브를 선보이며 대형 투수로 거듭났다. **김진우·한기주 등도 출전** 올 시즌 3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롯데에 입단한 광주일고 나승현과 한화 유원상 등도 무등기에서 숨은 실력을 뽐내 프로에 입문한 케이스이다. 2005년 12회 대회에서 17.1이닝, 5피안타, 무실점 피칭으로 천안 북일고를 우승으로 이끈 유원상은 한화와 5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했다. 이밖에 '에니콜' 임창용은 1회 대회 때 사이드암 투수로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전병두 9일 첫 선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으로 주목받은 KIA 타이거즈의 좌완 전병두(22)가 오는 9일 광주 한화전에서 올 시즌 첫 선발 출전한다. KIA 서정환 감독은 6일 "불펜진을 강화하기 위해 전병두를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병두의 선발 로테이션 합류는 장기 레이스를 염두해 둔 KIA 벤치의 포석이다. 올 시즌 초 KIA 선발진은 김진우-그레이싱어-강철민-한기주-이동현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동현의 부진으로 불펜에 있던 이상화가 대체 카드로 올라왔고 또 다른 구원투수 정원이 여겨 통증으로 1군 엔트리에서 탈락하면서 불펜에 구멍이 생겼다. 여기에 '도통 에이스' 김진우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일주일째 선발 등판을 미루는 악재까지 겹쳤다. 현재 KIA 불펜에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윤석민도 남아있지 않음 때문에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결국 KIA 코칭스태프는 이상화를 다시 내려 불펜을 강화하고 전병두에게 선발의 남은 한자리를 책임지게 하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 서 감독은 "전병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7일(수)
 ▲메이저리그(보스턴-뉴욕Y)(07:55-Xports), (뉴욕M-LA다저스)(11:00-Xports)
 ▲독일월드컵 축구 평가전(독일-폴란드)(13:50-MBC)
 ▲일본 프로야구(소프트뱅크-요미우리)(17:50-Xports)
 ▲WBFC 배트볼 타이틀매치(남북여자복심)(18:00-MBC ESPN)
 ▲프로야구(두산-현대)(18:00-KBS SKY SPORTS), (한화-SK)(18:00-SBS 스포츠)
 ▲청룡기고교야구 선수권대회 결승전(20:00-MBC ESPN)
 8일(목)
 ▲독일월드컵 축구 평가전(프랑스-중국)(03:50-KBS2)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자산관리, 분양, 매매, 전매, 전세, 임대, 부동산
 광주·전남권토지구합
 Tel : 062)973-9174, 016-757-8800

침단·수완·신창
 상업용지 택지 상가건물 중개전문

침단최고오지
 3번도로접
 560여평

침단지구 상업용지
 240평 270평 510평 567평 1100평 3000평
 100평 111평 115평 180평 200평 250평 7기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지역, 협의안도인백지, 생원대역용지

신창택지 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우량임야
 (연수원 북지, 생원대역, 용지 등)
 담양 25만평, 장성 9만평, 보성 12만평, 영암 18만평, 순창 40만평, 기타

팔연연습장, 물류유통센터
 99000평 40000평 50000평 1만평 2만평

건물매도
 5억 8천5천 20억 25억 35억 66억 7기

주유소
 1300평 15억 6000평 16억 6500평 35억 3500평 12억 3000평 8기

광주지역 녹지 사업부지
 주유소부지 890평 900평 기타, 팔연연습장부지 4300평 1만3천평, 물류·공장부지 2900평 2800평 4900평, 수완동 4차선 접 1200평 1800평, 삼거리 2차선 접 2500평

전원주택 (주택부지)
 도로-경관 최고, 임곡동 3억, 봉산 4억, 담양수북 2000평 1900평

공장
 장성 3000평, 하남공단 980평

침단지구 A급 상가
 임대 45평 50평 기타

장성·담양권 물건구합

광주·전남권 토지 건물
 -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분석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

아주 특별한 제안

독점상권의 상업지역
 ■ 지하층~지상6층, 연건평-2,500평
 ■ 특별분양·임대 상담합영

종합병원
 ▶ 엘리베이터 2대
 ▶ 주차장(150대) 완비
 ▶ 건물 준공 검사필
 ▶ 분할도 가능함

사우나(점질방)
 ▶ 주차장 완비
 ▶ 제반시설 및 지하수 풍부
 ▶ 장성군민의 절대우치, 희망업종

건축주, 시공사, 시행사
 주시회사 삼호주택이 직접 분양·임대분양

장성 삼호센트럴타워
 ● 분양/임대 상담문의: 061)393-5550
 ● 특별 상담(본부장): 011-624-1115

국민지도
 http://www.hanmap.co.kr 국민지리정보(주)

최신정보수록, 3월 도시계획고시안 확정
2006 광주광역시 지적, 임야 약도 판매중
광주광역시 책자 5천분의 1 150,000원 판매중
100,000원 판매중
광주광역시 책자 포켓용 3만5천원

국민지리정보(주)대리점 모집 (광주지역 2곳)
현재 시판중인 지번도책 목록
 광주광역시, 나주시,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장성군, 함평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광주지사 : 062-385-0114
목포지사 : 061-284-7833
순천지사 : 061-744-0973

광주지사 위치: 상촌동 무진로 버들마을앞

중앙국토개발건설
 (한) 011-647-3500 (광주지방법원 뒷편)

상가, 점포
 - 지상동 5층 상가, 대45평, 건 110평, 원주거리지역, 20m 도로, 교통양호, 1, 2, 3층 사무실, 4, 5층 주택, 매도 3억3천만원

원룸
 - 계림동 송선관광호텔 앞 원룸, 대지53, 건물 2층 940평, 지하층, 지상4층(원룸11개, 부동3개)

전원주택, 별장용지
 - 전남 나주 풍림리, 자연녹지, 850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산평매매
 - 광주 남구 안촌동 대촌중앙초교 건너(평간제 옆) 개발제한, 자연녹지, 84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중공업 임야
 - 장성 북이면 원덕리, 25,195평,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구역, 차량출입용이, 계곡이 흐르고 전면에 저수지, 정남향, 평당 12,000원

광주 동구 소재, 13,093평, 자연녹지, 차량출입용이, 전기공급됨, 지하에 야수터 소재,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시설 있음, 평당 2,000원

모지용 임야
 - 화순 이십리리, 너릿재와 검분소 사이 우측 임야, 2500평, 평당 50,000원, 조경가

GS부동산컨설팅
 T. 572-7744, 9966 (한) 011-607-9908 (영산동 그린자이 컨설팅장 앞)

상가임대
 1층: 약국, 금은방, 안경점
 2층: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3층: 안과, 치과
 4층: 화원, 기타

지하층: 105평, 노래방, PC방
 영산동, 신개발지 중앙거리 코너 APT 10000여세대 밀집지역 상권 최고

분양권매매
 ◎양산동 GS 그린자이
 - 35평형 분양가 1억5800, 3600 납부, 최상층 남향 중건라인 매매가 1억7천
 - 42평형 분양가 2억500, 1억2천 납부 16층 중건라인 맨윗층 전망최고 매매가 2억1천700만
 - 49평형 분양가 2억4200, 1억5천 납부 17층 중건라인 남향,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6천
 - 56평형 분양가 2억3천, 2천300 납부, 풍요선 10층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3천8백

대지공인중개사
 (한) 011-625-3965

임야 11,000평, 담양 창평
 - 농림지역, 완전평지, 전면 80m 포장도로접
 매매가 평당 19,000원

중흥동 35m 대로변 준주거지역
 - 대지 280평 건평 300평 전면 22m 대로변 매매가 10억 5천만원

신안동 상업지역 대지 102평
 - 조립식건물 64평 현오실 매 2억 5천만원 (용 1억, 보 2500만원, 150만 포함)

문성동 4차선 대로변 900평
 - 2층건물 있음, 생산녹지, 매매가 12억

도천동 생산녹지 포장도로접
 - 907평 매평당 78만원

화동 대지 120평
 - 여관건물 150평 포함 매평당 330만원

금남로 공시지가 15억
 - 매매가 8억 대지 140평